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7권 1호(2011년 6월) 27-46

에블린은 움직일 수 있는가?: 『에블린』의 “마비”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임 경 규

I. 「에블린」, 마비, 그리고 서벌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을 수업 교재로 사용할 때면, 으레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측면에서 마비된 인물인지, 마비의 근원은 무엇인지, 또한 그 마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하는 것과 같은 질문들 말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전제가 뒤따른다. 더블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마비된 자들이며 따라서 일정 정도의 계몽과 계도가 필요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에블린」("Eveline")에 나타나는 선택의 문제와 그것에 내재된 마비의 계기들에 대한 질문은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 나타나는 마비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토론 주제가 된다. 여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업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학생들 대부분은 에블린이 떠났어야 옳았다는 암묵적인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집에 남아 있는 것이 도덕적/정치적 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다. 실제로 에블린이 처한 딜레마가 마비라는 말로 간단

히 재단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에블린」을 가르침에 있어서 이러한 전제와 질문들은 필요불가결한 의식(ritual)과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런 질문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본 적도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왜냐면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의 창작 의도로서 “내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을 쓰는 것이며 더블린을 그 무대로 선택한 것은 그 도시가 마비의 중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선언했고, 그것이 『더블린 사람들』을 읽는 해석 틀로서 위낙 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Letters* 134).

「에블린」에 대한 비평사를 살펴보더라도 ‘마비’가 해석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마비는 에블린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상실 혹은 부재로 인식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1972년에 발표된 휴 케너(Hugh Kenner)의 논문은 「에블린」에 대한 해석의 프레임을 바꾼 것으로 많이 인용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케너는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큰돈을 벌었으며, 그가 말하길, 단지 휴가차 옛 조국을 찾아왔다”(He had fallen on his feet in Buenos Ayres, he said, and had come over to the old country just for holidays.)는 문장을 인용하며, “그가 말하길”이라는 구절의 앞뒤로 찍힌 두 개의 쉼표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그에 따르면, 위의 말은 에블린이 프랭크의 말을 인용한 것이며, 프랭크 역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당시 유행하던 싸구려 소설 속의 대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20). 즉, 프랭크는 단순히 말 잘하는 사기꾼이며, 그의 유혹을 뿌리친 에블린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케너는 이후에 에블린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예단한다. 다시 말해서, 케너에게 있어 에블린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마저 판단하지 못하는 우둔한 여자이다. 그 우둔함은 결국 마비의 또 다른 형태인 것이다.

캐서린 멀린(Katherine Mullin)은 에블린이 처한 딜레마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킨 자유주의적 전통을 극복한다. 멀린에게 있어 에블린은 두 가지 상반된 담론의 산물이다. 당시 아일랜드를 둘러싼 이민 담론과 그에 대응하는 민족주의 및 백인 노예 담론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 에블린 판타지와 현실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에블린은 이 완고한 두 담론 구조물 사이에 “사로잡혀”(entrapped) 어떤 탈출구도 찾지 못한다(107).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녀는 필연적으로 주체로서의 실천능력(agency)을 상실한 채 하나의 “가련한 짐승”(helpless

animal)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D 32). 케너의 자유주의적 해석이 남성중심주의적이고 이성중심주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멀린의 해석 역시 문제가 된다. 에블린을 폭력적 구조의 수동적 피해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절대성에 호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님 이론과 비평적 행위의 윤리적 문제이다. 에블린과 같은 서벌턴 집단을 이론적 담론 속으로 전유함으로써 그들을 타자화시킬 수 있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의 해석은 상당히 흥미롭다. 노리스는 「에블린」을 조이스의 전기와 겹쳐 읽기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에블린은 케너가 생각하듯 바보였을까?”(289) 그리고 손드라 멜저(Sondra Melzer)의 말을 빌려 에블린이 자신이 처해있는 억압적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프랭크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294). 이는 에블린에게 상당한 정도의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녀를 “가련한 짐승”의 영역으로부터 구원해낸다. 에블린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케너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에서 압축되고 생략된 부분을 상상력을 통해 매울 것을 요구한다. 비평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재구성(refashioning)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인 여성의 입장에서 서벌턴 여성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 Spivak)의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듯하다.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에블린은 말할 수 있는가?” 오랜 영국의 식민통치 역사를 통하여 아일랜드 자체가 아만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에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 상황에서 아일랜드 여성은 이중적 억압의 피해자였음도 역시 부인하기 힘들다. 멀린이 지적하듯, 여성의 삶에 관해서만큼은 제국주의와 아일랜드의 가부장적 민족주의가 공모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193). 이런 상황에서 에블린의 삶을 서구 지식인 여성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자칫 아일랜드 남성에게서 아일랜드 여성은 구원해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에블린의 주체성을 공동화시키고 서구 지식인들의 욕망을 투사하는 ‘민 서판’(tabular rasa)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에블린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다. 결국 「에

블린』을 해석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텍스트에 제시된 에블린의 삶과 행위를 이론적 틀 속에서 물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에 내재된 주체로서의 가능성과 해방적 계기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블린」에 나타나는 ‘이민’에 관한 담론을 ‘디아스포라’ 담론으로 전이시켜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가 될 수 없었던 에블린의 삶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블린이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 마비가 새로운 해방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더블린 그리고 디아스포라 공간

『에블린』의 첫 몇 문단의 중심적 이미저리는 ‘변화’와 ‘이동’이다. 그러나 그 변화와 이동은 삶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의 추구와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하다. 차라리 뭔가에 쫓기어 뿔뿔이 흩어진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다소 정적인 듯 보이는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간명하게 포착해낸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저녁이 거리를 침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She sat at the window watching the evening invade the avenue, 26). 트레버 윌리암스(Trevor L. Williams)가 지적하듯, 지금까지 비평가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가 “침략하다”임은 그리고 그 주체가 어둠을 의미하는 저녁임은 분명 많은 것을 암시한다. 어둠의 침략은 무엇보다도 에블린의 수동적 행위와 대비된다. 그녀는 “‘침략’과 그것에 내재된 군사적 함의를 사실상 자연스럽게 용인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처한 곤경의 진정한 근원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 . . 그녀는 그러한 영향을 저녁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442). 이런 수동성은 아일랜드의 암울한 역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은 외세의 반복적인 침략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던지는 그림자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침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벨파스트에서 온 사람”(a man from Belfast)으로 표현되는 벨파스트 자본의 경제적 침략과(D 27),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군인들”로 상징화되고 있는 영국의 군사적 침탈이 그것이다(Williams 442).

이 경제적 군사적 침탈은 에블린을 비롯한 더블린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삶을 굴절시킨다. 에블린의 삶은 특히 경제적 침략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벨파스트에서 온 사람”이 들어오기 이전 그녀가 살던 마을에는 넓은 공터가 있었다. 매일 저녁이면 그곳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어찌 보면 그곳은 단순한 놀이터 이상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공동체적 일체감이 형성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회초리를 든 아버지가 간혹 방해꾼으로 등장했지만 그것은 행복했던 한 때를 수놓았던 추억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 결코 두려움이나 폭력의 상징만은 아니었다. 사실 그때는 아버지가 그리 무서운 존재도 아니었을 뿐더러 어머니도 살아계셨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곳은 외부 세력의 침략 이전의 신화적 과거, 모든 아일랜드인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유토피아적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벨파스트에서 온 사람이 그곳을 매입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지붕이 있는 벽돌집”(bright brick houses with shining roofs)을 지으면서 그 신화적 공간은 파괴되었다(D 27). 그에 따른 변화의 파장은 에블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먼저 가정의 파괴로 나타났다.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어머니의 죽음이 그것을 상징한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 아버지의 부정적 변화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경제적 주권의 상실은 일종의 상징적 거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이런 남성성의 상실을 가정폭력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락함과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오로지 폭력만이 그곳을 지배하게 된다. 가정의 파괴는 지역과 민족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떠났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 . .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들, 여동생들도 이제 다 성장을 했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터지 던도 이 세상을 떠났으며, 위터네 식구들은 영국으로 돌아가버렸다. 모든 것이 다 변했다”(26-27). 그리고 이제 에블린 역시 남들과 같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변화의 기류에 떠밀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도대체 어디서 날아 들어오는지도”(where on earth all the dust came from, 27) 모르는 면지들처럼 말이다.

외부 자본의 침투와 전통적 커뮤니티의 파괴 그리고 그에 따른 마을 사람들의 이주와 변화가 지시하는 것은 간명하다. 국경선의 약화이다. 일찍이 영국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식민화되었던 아일랜드이었기에 그들을 향한 착취의 문호는 언제

나 열려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백 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던 대기근(Great Famine)은 민중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의 여정으로 내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기근이 정점에 달했을 당시 매년 25만 명 정도가 국경선을 넘어 새로운 정착지로 향했을 정도였다.¹⁾ 다시 말해서, 19세기의 아일랜드는 제국주의의 횡포와 그 여파로 인하여 아브타 브라(Avtar Brah)가 “디아스포라 공간”(diaspora space)이라 부르는 것, 즉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쉼 없이 일어나는 전지구적 네트워크 속에 내던져지게 된 것이다. 자본과 노동의 유통망으로서의 디아스포라 공간은 “여러 가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충동들이 공존하며 교차하는 장”(181)으로, 민족국가, 국경선, 집과 같은 일반적으로 일정 정도의 고정성을 통해 이해되던 개념들을 문제시한다. 디아스포라 공간은 단순히 디아스포라들만 살고 움직이는 공간만은 아니다. 여러 이질적인 디아스포라 집단과 토착민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자와 타, 이주민과 토착민과 같은 이원론적 개념들을 해체시키는 공간이기도 하다(208-9).

아일랜드가 자본과 인적 자원의 쉼 없는 이동이 일어나고, 각 개인 혹은 집단들의 보다 큰 자유와 행복에 대한 열망이 교차하는 장으로서의 디아스포라 공간으로 편입되는 순간, 아일랜드의 문화적/지리적 중심으로서의 더블린은 이제 수많은 개인 혹은 집단들이 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거나 뿌리를 내리는 디아스포라적 여정의 한 기착지로 축소된다. 앞서 언급한 멀린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일랜드에서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담론과 더불어 해외이민에 대한 찬반 담론들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음은 위의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경선은 아일랜드라는 민족적 정체성의 안과 밖을 결정해주는 안정된 울타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민족국가의 약화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절대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집은 떨치려 해도 떨칠 수 없는 질곡과도 같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고정된 어떤 것도 아니며,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변하지 않는 근원도 아니다. 집은 움직일 수 있는 (movable) 것이며, 또한 선택 가능한 것이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말을 빌린다면, 집은 보다 큰 행복을 쫓는 기나긴 디아스포라적 여정 속에서 “잠시 머물러

1) Wikipedia, “Great Famine” 항목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Great_Famine_\(Ireland\)](http://en.wikipedia.org/wiki/Great_Famine_(Ireland))>

가는 곳”(a site of arbitrary stop)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에블린은 더블린을 떠나 새로운 집을 꿈꿀 수 있는 것이며, 더블린의 집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집, 아버지의 집과 프랭크의 집 사이에서 약간의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III. 오는 자, 떠나는 자, 그리고 남는 자

「에블린」에서 그려지고 있는 더블린을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디아스포라 공간의 일부로 상상한다면, 이야기 속 인물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오는 자, 떠나는 자, 그리고 남는 자이다. 벨파스트에서 온 사람과 부둣가에 있는 군인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거리의 악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라면, 워터네 가족들, 빛바랜 사진 속 주인공이자 “지금 멜버른에 있는” 신부(27), 그리고 프랭크는 떠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에블린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어린 동생과 더불어 에블린이 일하고 있는 상점의 주인 “케이번 양(Miss Gavan)”은 남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구별하는 핵심적 요인은 바로 “이동성”(mobility)이다. 이는 의식적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지리적/사회적 정체성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이동성은 디아스포라 공간이라는 유동성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디아스포라 공간의 특징적인 문화자본이라 할 수 있다.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자아의 영토를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에블린」의 주제는 이런 이동성의 확보를 위한 인물 간의 갈등과 투쟁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기에 각 인물들은 여러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에블린이 창가에 앉아 고민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 그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동성 자체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형의 자본으로서 일정 정도의 독점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즉,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움직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의미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내는 것도 아니다. 이동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의식적 실천’의 유무와 ‘지리적/사회적 정체성의 변화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

실천의 부재에 의한 이동 혹은 정체성에 의미있는 변화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동은 결코 긍정적 의미에서의 움직임이라 할 수 없다. 예컨대, 벨파스트에서 온 사람은 더블린 빈민가의 땅을 매입하여 자본 축적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프랭크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일랜드를 떠남으로써 수동적인 피식민자 (colonized)의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 식민자 (colonizer)로의 변신을 꾀하며 결국은 큰돈을 벌 수 있었다. 그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움직이는 주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블린은 어떠한가?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강요하는가?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더블린에서 그녀의 등을 떠미는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녀가 일하는 상점에서의 갈등, 즉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이다. 둘째,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에 가하는 인식론적/물리적 폭력이다. 게다가 이 폭력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은폐되거나 위장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 “침략”이라는 말 속에 내포된 제국주의적 폭력이다. 이는 앞선 두 가지의 위험 요소인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공모관계를 형성하며 더블린에서 에블린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순과 폭력은 어머니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결국엔 정신병자로 죽게 만들 정도로 야만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에블린이 떠나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기와 혓소리 속에서 생을 마감”(closing in final craziness)하지 않는 것이다(D 31).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녀에겐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프랭크가 곁에 있었다. 그녀에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는 결혼과 더불어 “아주 멀고 잘 모르는 나라에, 새로운 집”(new home, in a distant unknown country)을 약속했고, “사람들이 존중해줄 것”(People would treat her with respect)임을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녀 역시 그럴 것이라 상상했다(D 28). 그렇지만 그녀가 획득한 이동성은 불행스럽게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프랭크가 지닌 이동성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에블린이 프랭크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때 캐너의 말처럼 프랭크가 말 잘 하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멀린의 말처럼 그가 백인노예 브로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에블린이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개인의 인성이

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의 문제이다. 프랭크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또 에블린이 얼마나 협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프랭크와 에블린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프랭크/에블린의 관계가 아버지/에블린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²⁾ 더군다나 아르헨티나 역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된 공간도 아니며, 또한 제국주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도 아니다. 에블린에게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녀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단지 그 고단한 삶의 공간이 더블린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궁극적으로, 그녀의 움직임은 프랭크의 이동성만을 강화시켜주는 역설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움직임의 부재가 반드시 이동성의 결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움직일 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블린과 게이번 양은 둘 다 남아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미스 게이번은 일정 정도의 자본과 자유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에 움직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종업원인 에블린에게 편장을 주거나 여차하면 광고를 내어 새로운 종업원을 구할 수도 있다. 이는 게이번 양이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본을 축적하고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그녀가 어떤 사내놈과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뭐라 말할까? 아마도 바보라 하겠지. 아마도 그 자리는 광고를 내어 곧 채워지겠지. 게이번 양은 좋아할 거야. 그녀는 늘 나에게 심하게 굴었으니까. 특히 남들이 듣고 있을 때면 언제나 그랬으니까.

- 미스 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안 보여요?
- 정신 좀 차려요, 미스 힐, 제발.

What would they say of her in the stores when they found out that she had run away with a fellow? Say she was a fool, perhaps; and her place would be filled up by advertisement. Miss Gavan would be glad. She had always had an

2) 디아스포라 여성들에 대한 남성중심주의의 폭력은 디아스포라 남성들이 갖는 주류문화에 대한 동경과 질투심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스피박의 주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Spivak 251).

edge on her, especially whenever there were people listening.

- Miss Hill, don't you see these ladies are waiting?
- Look lively, Miss Hill, please. (D 28)

에블린의 아버지 역시 게이번 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그는 축적된 자본도 특출한 능력도 없는 더블린의 하층민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그 누구 못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분명하다. 어머니의 생전에는 어머니를, 그리고 그 후에는 에블린과 아들 해리(Harry)의 노동력과 돈을 착취한다. 특히 그는 어머니와 에블린을 폭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과 노동에 묶어둠으로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바로 그러한 폭력적인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언제나 술에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오로지 하나이다. 가끔 에블린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소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병든 에블린을 위해 잠시 책을 읽어주거나, 어머니의 옷을 입어 아이들을 웃게 해주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 보잘 것 없는 행위조차도 에블린에게는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에블린이 가정을 지키는 한, 그 집에서 그가 향유할 수 있는 자유는 가히 영구적이라 할 만하다.

이 정황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이다. 이동성은 계급, 젠더, 인종, 민족과 같은 개념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충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특정 시대에 전지구적으로 펼쳐져 있는 권력관계와 긴밀한 유착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권력관계 속에서 제국주의자, 자본가, 남성은 에블린의 이동성을 제한하거나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동성과 자유를 확장한다.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적/동적) 이동의 자유는 에블린의 정체성(停滯性)과 고정성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에블린에게 이동성은 금지의 영역이며 불가능의 기표이다. 그녀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 또한 움직여서도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에블린이 속한 사회가 그녀에게 부과한 유일한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명령이다. 식민공간을 살아야 하는 그녀에겐 처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라는 것은 기만적인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과 금지 사이의 선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그 어떤 대안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의 마비는 볼프강 비히트

(Wolfgang Wicht)의 주장처럼, “본질적 해방 텍스트의 부재”(the absence of an essential emancipatory text)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119).

IV. 외재성과 서벌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두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에블린은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디아스포라 공간 속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변형된다. 에블린은 움직일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서벌턴은 움직일 수 있는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이동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스피박은 자신의 논문 「디아스포라의 어제와 오늘」(“Diaspora Old and New”)에서 서벌턴 여성을 “디아스포라 문제의 타자”(the other of the question of the diaspora)로 규정한다. 즉, 서벌턴 여성은 디아스포라의 타자로서 디아스포라의 이동행로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탈궤도적”(ex-orbitant) 존재라는 것이다(246). 제국주의 시대 디아스포라는 종교적, 정치적 억압의 산물로서,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 그 자체로 그들의 몸에 속박이 채워져 있음을 의미한다. 디아스포라는 억압과 고통의 표지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디아스포라에는 약간의 해방적 계기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행로가 의식적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억압적 현실로부터의 능동적 ‘탈출’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억압적인 고향의 현실을 떠나 타향에서 새로운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랭크와 같은 유럽 출신의 백인 남성 디아스포라는 적극적인 탈출을 통하여 피식민자에서 식민자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벌턴들이 “탈궤도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해방적 계기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디아스포라가 누릴 수 있는 해방적 계기들은 서벌턴을 자신들의 궤도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만이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벌턴은 디아스포라 공간 내부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공간 속으로 흡수될 수 없는 잉여적 존재들이다. 디아스포라 공간은 그러한 잉여적 요소를 생산해야만, 혹은 그들의 고착성과 부동성에 기생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서벌턴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혹은 에블린이 탈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농담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에블린은 결코 움

직일 수 없다.

분명 서벌턴은 움직이지 못하며, 애블린은 떠나지 못한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데카르트적 주체의 전통 속에서 그것은 서벌턴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 속박으로부터의 능동적 탈출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국주의자로의 변모를 피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서벌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벌턴이 그리고 애블린이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오류이다. 그것은 그들이 민족문화의 근원으로서, 최후에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서 영원히 그곳에 변치 않고 남아 있길 원하는 디아스포라들과 여타 민족주의 앤리트 계급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을 움직일 수 없는 잉여적 존재들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최소한의 실천능력마저 박탈해 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제기했듯, 이러한 논리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서벌턴의 삶을 이성중심주의나 남성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마름질하여 그들의 삶 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억압의 계기들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삶과 행위 속에 내재된 해방의 계기들을 텍스트의 표면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벌턴이 분명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남성중심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조화된 디아스포라 공간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나름의 방식을 통하여 자신들만의 이동 공간을 생산해내고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피박이 사용하고 있는 “탈궤도적”이라는 용어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제니 샤퍼(Jenny Sharpe)는 이를 “환원 불가능한 외재성”(an exteriority that is irreducible)으로 정의한다.³⁾ 특히 그녀에게 이것은 지식인과 서벌턴의 문제적 관계에 대한 매태포가 된다. 즉, 서벌턴이 “탈궤도적”이라는 것은 서벌턴이 지식인 담론의 절대적 외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벌턴의 삶을 해석하고 추적하려는 지식인들의 모든 노력은 필연적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⁴⁾ 샤퍼의 이런 주장을 서벌턴과 디아스포라 공간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재해

3) 샤퍼는 “탈궤도적”이라는 말을 스피박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데리다의 『문법학에 대하여』(Of Grammatology)에서 차용한 것이다.

4)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환원불가능한 외재성으로서의 서벌턴과 비평가의 필연적 실패”(the subaltern as an irreducible exteriority and the critic's necessary

석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추론에 도달하게 된다. 서벌턴은 탈궤도적인 존재로서 디아스포라의 타자이다. 즉 디아스포라 공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곧 그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움직임이 디아스포라의 이동 궤도로 환원될 수 없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움직임을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혹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유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필연적인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지니는 절대적 외재성은 제국주의 담론으로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거부한다.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서벌턴은 비록 데카르트적인 의미에서의 움직이는 주체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정체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움직임과 실천방식을 이성중심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추적할 수 없기에, 일반적인 디아스포라의 언어로 번역이 불가능하기에, 그리고 텍스트의 표면에서 즉각적인 표현을 갖지 못하기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혹은 마비되어 있다고 때 이른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서벌턴은 그들이 소외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극적으로 생활한다. 다시 말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마비의 영역이라고 칭하는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시작된다. 탈궤도적 존재로서의 서벌턴의 언어와 움직임은 분명 제국주의나 민족주의의 발전론적 서사의 궤도 속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배 담론을 전복시키고 그들을 궤도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되지만, 동시에 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해체적인 요소로 되돌아온다. 비록 그것이 의식적으로 기획된 복수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는 곧 마비의 공간이 그들만의 해방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V. 광기, 마비, 그리고 전복

『에블린』에서 가장 소외되고 비루한 삶을 살았던 인물은 바로 에블린의 어머

니이다. 그녀의 삶은 모순적이다. 그녀는 애블린의 가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동시에 그녀는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인해 파괴되고 비루해진 ‘집’의 상징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당시 아버지의 폭력은 견딜만한 것이었고 그의 술주정 역시 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정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어린 애블린은 동네 공터에서 친구들과 행복했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병마와 광기 속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가족의 행복은 철저히 그녀의 희생에 기생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텍스트 내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녀는 오로지 가족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며, 소통불가능한 광기의 언어로만 기억되는 인물이다. 가족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녀를 집에 가두어둠으로써 자신들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녀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수동적인 피해자이며, 말 그대로 “가련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딸마저도 자신과 똑같은 생을 살도록 강요한다. 병상에 누워 그녀는 애블린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그 약속이 자신의 딸 애블린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진실조차 모른 채, 자신의 고통을 딸에게 대물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담지자이자 마가릿 마리아 알라코크(Margaret Mary Alacoque)를 통해서 상징되는 억압적 종교 이데올로기의 화신이다. 그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더블린의 타락과 정신적 마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로 그 모든 폭력 앞에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또한 그 폭력이 폭력인지도 모르는, “가련한 짐승”이었을까? 그녀는 진정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매개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광기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블린」의 이야기는 정신병원이 제도화되기 이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에드워드 쇼터(Edward Shorter)에 따르면, 유럽에서 정신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정신질환자들은 “절대 집 밖으로 쫓겨나지 않았다.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은 커뮤니티가 아닌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19세기 이전 미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세상에서 가정에서의 치료는 한 편의 공포소설이었다”(2). 쇼터는 또한 19세기 후반 영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루이스 캐러텍(Louis

Caradec)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시골 지역의 사람들은 집안에 미친 사람이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그래서 그 환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이 그 고통받는 환자들을 집안에 두려했던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3). 이런 현실은 어머니의 광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에블린의 어머니는 광기 속으로 침잠함으로써 일상적인 더블린의 삶이 지니는 궤도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말 그대로 “탈궤도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그녀는 실질적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임여인간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가정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이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집 안에 있음과 동시에 밖에 존재한다. 이런 실존적 모호성은 안과 밖의 변증법을 허물어 버린다. 올타리를 잊어버린 집은 이제 더 이상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행복과 안락함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이 이제 해석 불가능한 언어로 가득 찬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으로 변질된다. 게다가 그녀가 궤도를 이탈함과 동시에 그녀에게 기생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집이라는 공포의 공간 속에 유폐된다. 에블린은 어머니의 병상을 지켜야만 했고, 아버지는 집 주변의 타인들을 쫓아내며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해야만 했다. 또한 가장이었던 아버지는 사회적 오명까지 감당해야만 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자와 움직이지 못하는 자 사이의 관계가 역전되고 전복된다. 비록 어머니의 몸은 “비좁고 어두운 방”(the close dark room)에 갇혀 있었지만(30), 그녀의 정신은 궤도를 이탈해 집안일과 세속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었다. 반면 그녀의 가족들은 사회적 오명과 더불어 폐쇄된 공간 속에서 광인을 돌봐야 하는 공포와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Derevaun Seraun! Derevaun Seraun!”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31). 이것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말로서 그녀의 주체성이 투영된 유일한 언어이다. 그것은 텍스트 전체에서 해석이 불가능한 유일한 언어이기도 하다. 이는 전체 내러티브 구조 속으로 편입될 수 없었던 절대적 “외재성”으로서의 어머니의 타자성을 지시하며, 또한 그녀에 몸에 가해진 정신적·물리적 폭력에 대한 기표로서 기능한다. 그러기에 가족들에게 이 말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상기시켜줄 수밖에 없는 것

이다. 거리의 악사를 향한 아버지의 욕설은 그에 대한 방증이다("Damned Italians! coming over here!"). 즉, 자신에게 밀려오는 공포감을 타자에게 전이시키고 있을 뿐인 것이다(31). 또 한편으로 어머니의 언어는 에블린에게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기억되는 어머니의 명령은 “할 수 있는 한,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Derevaun Seraun!”과 겹쳐지면서, 일상적인 언어가 감당할 수 없는 임여를 생산해낸다. 이를 통해 약속이라는 기표의 천박한 자의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라”는 약속은 정 반대의 명령으로 뒤바뀐다. “탈출하라!”(31). 다시 말해서, 광기에 시달리고 있는 몸을 통해 그리고 그 광기의 언어를 통해, 그녀는 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한 전철을 되밟지 말라! 그렇지 않고서야 에블린이 어찌 어머니와의 고귀한 약속을 깨 수 있었겠는가?

“탈궤도적” 존재로서의 삶이 마치 숙명인양 어머니의 정신적 광기가 에블린에게는 육체적 마비로 재연된다. 에블린은 집으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프랭크에게로 향한다. 하지만 프랭크를 따라 배를 타기 직전 그녀의 몸은 굳어버린다. 프랭크는 배를 타려는 군중들에 휩싸여 떠밀려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그녀의 육체적 마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진정 탈출을 감행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프랭크를 따라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집을 나서기 이전, 그녀는 프랭크와 결혼한다면 “삶이 달라질 것”(it would not be like that)이라고(28),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머니의 광기가 아닌 자신만의 “생명/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He would give her life, perhaps love too, 31). 그런데 여기서 그녀가 원하는 “생명/삶”이라는 공간은 결코 낭만적 판타지의 공간이 아니다. 사회적 권력관계에 예속된 공간이며, 일반적인 삶의 궤도 속에 편입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는 곧 그녀가 갈망하는 “생명/삶”이 민족, 계급, 젠더, 인종 등의 권력질서에 의해 굴절될 수밖에 없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그녀를 예속시켰던 사회적 기표가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 바뀔 뿐 사실상 어느 것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결코 그녀를 현재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없는 조건이다. 이는 어머니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녀의 마비는 우둔함이나 정신적 마비와는 전

혀 별개의 것이 된다. 오히려 그것은 에피파니의 경험에 가깝다. 가부장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호명이 갖는 폭력성에 대한 에피파니인 것이다. 그 희미한 깨달음은 보다 실질적인 폭력의 형상으로 그녀에게 다가온다. “그가 그녀를 익사시킬 것이다”(He would drown her, 31). 프랭크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다. 오히려 에블린의 삶을 자신의 궤도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녀를 또 다른 공포와 폭력의 공간 속에 가두어둘 뿐이다. 그 에피파니의 순간 몸이 마비되며 프랭크가 계획한 궤도로부터 탈출한다. 그녀의 몸이 그 궤도를 거부한 것이며, 프랭크의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Her eyes gave him no sign of love or farewell or recognition, 32). 마비를 통해 자유를 얻은 것이다. 결국 마비는 그녀에게 있어 해방의 공간이며, 탈출의 공간인 것이다.

(조선대)

인용문헌

Brah, Avtah. *Cartographies of Diaspora: Contesting Identities*. New York: Routledge, 1996.

Joyce, James. "Eveline." *Dublibers*. Ed. Margot Norris. London: W.W. Norton & Company, 2006. 26-32.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s. II and III*.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66.

Kenner, Hugh. "Molly's Masterstroke." *James Joyce Quarterly* 10.1 (1972): 19-28.

Mullin, Katherine. "Don't Cry for Me, Argentina: 'Eveline' and the Seductions of Emigration Propaganda." *Semicolonial Joyce*. Eds.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172-200.

Norris, Margot. "The Perils of 'Eveline.'" *Dublibers*. London: W.W. Norton & Company, 2006. 283-98.

Sharpe, Jenny. "Figures of Colonial Resistance." *Modern Fiction Studies* 35.1 (1989): 137-55.

Shorter, Edward. *A History of Psychiatry: From the Era of the Asylum to the Age of Prozac*.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7.

Spivak, Gayatri Chakravorty. "Diaspora Old and New in the Transnational World." *Textual Practice* 10.2 (1996): 245-69.

Wicht, Wolfgang. "'Eveline' and/as 'A Painful Case': Paralysis, Desire, Signifiers." *New Perspectives on Dubliners*. Eds. Power & Ulich Schierder. Atlanta: Rodopi, 1997. 115-42.

Williams, Trevor L. "Resistance to Paralysis in *Dubliners*." *Modern Fiction Studies* 35.3 (1989): 437-57.

Abstract

Can Eveline Move?:
Another Hidden Story in “Eveline”

Kyeong-Kyu Im

This essay attempts to re-read James Joyce’s “Eveline” subversively through the famous question posed by G. C.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In doing thus, I will modify the question to “Can the subaltern move?,” through which I will critically interrogate the Joycean conception of “paralysis” in the story of “Eveline.” And I will conclude that Eveline’s final paralysis is not a sign of her inability to escape from the oppressive patriarchal, nationalistic, and imperialistic ideologies that have dominated her physically and mentally, but that it is rather a denial of the interpellation of those ideologies, although it is of course not a consciously constructed resistance on the part of Eveline. In this reading, I reconfigure the story as a battleground or what Avtar Brah calls “diasporic space” in which each character struggles to become a diaspora who can gain access to transnational mobility and find a line of flight from oppressive circumstances. However, mobility is not distributed equally because it is discursively determined by historically particular power relations and thus necessarily connected to such questions as class, gender, and nation. As a female subject of the colonized nation, therefore, Eveline cannot but be what Spivak and Jenny Sharpe call an “ex-orbitant” subject, or non-diasporic who can by no means be diasporic. She is excluded from the orbit of diasporic movement towards new home and new identity, only to be a “helpless animal.” She is literally paralyzed by the social machine called imperialism and patriarchy. Yet this paralysis can also be interpreted as an emancipatory moment for her. It is because Eveline, as an ex-orbitant subject, could be an “exorbitant” one that excesses and defies the power relations dominating her life. That is to say,

her identity as an ex-orbitant could be welded with deconstructive forces which is immanent in her situation.

■ Key words : “Eveline,” paralysis, mobility, diaspora, ex-orbitant
(『에블린』, 마비, 이동성, 디아스포라, 탈궤도)

논문접수: 2011년 5월 22일

논문심사: 2011년 6월 12일

게재확정: 2011년 6월 13일